

일제강점기 대구부립도서관 건물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the Building of Daegu City Librar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조 용 완 (Yong-Wan Cho)**

김 종 성 (Jong-Sung Kim)***

초 록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대구부립도서관 건물의 변천과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당시의 신문기사, 도서, 공문서, 관보, 잡지기사, 통계, 도서관의 공식 역사자료, 관련 연구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이들에 대해 비교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구부립도서관에 관한 기존의 연구와 공식 역사자료들은 관련 자료의 서지정보와 원문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대구부립도서관 조례 제정일, 최초 도서관 건물, 도서관 신축 건물의 착공일, 준공일, 개관일 등에서 여러 오류들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대구지역의 도서관 역사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들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ansition of the building of Daegu City Librar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 do this, the articles of newspaper and periodicals, books, official documents, official gazettes, statistics, publications of official history of Daegu City Library and research papers were widely collected and cross-checked with each others. As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precedent researches and official history publications related to Daegu City Library had some important errors including the date of the municipal ordinance for Daegu City Library, the first building of Daegu City Library and the date of the breaking-ground, completion and opening for the new building. It is assumed that these errors were generated from the shortage of bibliographic information and full-text databases at those time. At the end of this study, additional research about the history of Daegu City librari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ere suggested.

키워드: 일제시대, 공공도서관, 도서관사, 중앙도서관, 경북

Japanese Colonial Period, Public Library, Library History, Jungang Library, Kyungbook

* 이 논문은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의 <대구도서관 100년 자료 발간> 연구과제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부교수(yongwan@cu.ac.kr) (제1저자)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kjs1010@km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0년 11월 27일 논문심사일자 : 2020년 12월 14일 게재확정일자 : 2020년 12월 14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4): 145-168, 2020.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0.31.4.145>

1. 서론

1.1 연구 목적

어느 학문분야이건 자신의 뿌리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문헌정보학 분야 역시 문헌정보학 이론과 연구에 관한 역사와 학문의 현장인 도서관의 역사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후대를 교육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도서관사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근대적인 도서관이 출현하기 시작한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 관한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지 논문은 1979년 이후로 20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수행되었거나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에 위치한 도서관에 관한 연구이며, 지방의 도서관 역사를 다룬 연구는 부산(김영석, 이용재 2018)과 대구(김남석 2001) 등을 비롯해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다.

일제강점기 대구의 유일한 공공도서관인 대구부립도서관은 비록 일제의 행정조직이나 기관에서 설립한 최초의 공공도서관이며, 현존하는 공공도서관 중 2번째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부립도서관을 계승한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이 펴낸 60년사(정기간행물 기사)와 80년사, 100년사 등의 공식 역사자료 외에 관련연구는 1편에 불과하여 일제강점기 대구지역의 도서관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명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일제강점기 대구에는 일제 행정기관 소속의 대구부립도서관 뿐만 아니라 1721년 경상감사가 설립한 관립도서관이자 기숙학교였으나 일제 통감부의 방해로 폐쇄된 낙육재(樂育齋), 저

항시인 이상화의 백부인 이일우가 1904년에 설립한 민족지향적 사숙(私塾)이자 민간도서관인 우현서루(遇賢書樓), 그리고 대구의 항일 청년단체들이 설립한 도서관과 순회문고 등이 운영되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와 기관의 공식 역사자료도 대부분 집필 당시 관련자료에 대한 서지정보 DB와 원문 DB 구축의 미비로 제한된 자료에 의존하다보니 역사적 기술에서 크고 작은 오류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오류는 다시 후대의 다른 연구나 기관 역사자료, 그리고 홈페이지 연혁 등에 그대로 인용되어 오류가 사실(史實)로 굳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대구와 경북을 대표하는 대구부립도서관에 대해, 특히 크고 작은 오류들이 발견되고 있는 대구부립도서관 건물의 변천과정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기존 연구에 나타난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부립도서관 건물의 변천과정 단계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기존 관련 연구와 기관 공식 역사자료들을 본 연구에서 새롭게 추가한 자료들을 비교, 검증하여 사실(史實)에 기초하여 일제강점기 대구부립도서관의 건축과 이전과정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의 대구부립도서관에 관한 문헌들을 광범위하게 수집, 분석하는 문헌조사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와 고문헌 원문자료(조선총독부통계연보 등), 국사

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중 일제강점기 DB들(직원록자료, 조선총독부 관보 등)과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근현대신문자료), 국가기록원의 〈조선총독부기록물〉, 조선일보 기사 DB 등을 통해 자료를 입수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이 구축한 원문자료를 활용하였고,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을 지낸 사이트 마코토 기념관(齋藤實記念館)의 협조를 통해 일제강점기 〈경북〉 잡지의 대구부립도서관 관련 기사를 입수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내 도서관사에 관한 연구문헌 중 대구 도서관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기술한 연구와 대구시립중앙도서관의 공식 역사자료(60년사, 80년사, 100년사)들도 참고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구부립도서관의 건축과 이전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관한 당시와 이후의 언론보도, 도서, 관보, 관련연구와 중앙도서관 공식 역사자료 등을 상호 교차하여 비교, 검증하였다.

2. 선행연구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 문헌정보학계에서 일제강점기 도서관사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송승섭(2020, 72)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관련 자료의 부족과 자료수집의 어려움, 그리고 해당 자료에 포함된 일제의 편향된 시각 등이 원인이라고 진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도서관사 관련 연구들 중에서 전국적인 범위에서 조사된 연구를 제외하고 서울과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일제

강점기에 지역기반의 공공도서관에 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송승섭(2020)은 일제강점기에 1908년 일본인 야마구치 세이(山口精)가 설립한 경성도서관과 1920년 윤익선 등이 가회동 취운정에 설립한 경성도서관, 1921년 경성도서관을 인수한 이범승이 종로 탑골공원 옆에 세운 경성도서관, 그리고 1926년부터 이 도서관이 일제의 경성부립도서관 종로분관으로 편입되는 과정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상호간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윤익선이 세운 경성도서관 장서의 대부분은 야마구치가 설립한 경성도서관 장서에서 구입한 것인데, 그 중 일부는 이범승을 거쳐 종로도서관으로 이관되었다. 그는 여러 경성도서관들이 도서관 운영을 위해 노력했지만 경영의 어려움으로 폐관되었지만 그 영향은 국내의 도서관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하였다.

일제강점기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도서관사에 관한 연구는 부산과 대구에 관한 연구 몇 편에 불과하다. 먼저 김영석과 이용재(2018)는 일제강점기 일본홍도회 도서관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1901년 10월 부산에 설치된 일본홍도회 도서관을 우리나라 근대 공공도서관의 시초로 삼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그 근거로 홍도회 도서관이 일본인에 의해 건립되었고, 설치와 운영 목적이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인 거류민을 위한 것이었고, 장서는 한국자료는 없이 대부분인 일서였으며, 홍도회가 일제강점기 전후에 일본 군국주의를 지지하는 단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일제강점기 대구지역 도서관 역사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김남석(2001)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그는 대구부립도서관을 일제에 의해 관 주도로 설립된 최초의 부립도서관이며, 근본적으로 도서관을 통해 조선의 지식인을 회유, 교화하려는 일제의 의도가 반영된 기관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대구부립도서관의 설립과정, 도서관 직제와 직원구조, 자료조직 활동, 열람봉사 활동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당시 관련자료의 파악과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가 수행되다보니 대구부립도서관 설립과정과 직제 등에서 일부 오류들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김남석의 연구 외에 대구부립도서관 관련 연구는 없으나 대구부립도서관을 계승한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이 대구부립도서관 시절부터 시작된 자관의 역사를 정기간행물 기사 형태의 60년사와 단행본 형태의 80년사, 100년사 등으로 발간하여 일제강점기의 대구부립도서관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1979년에 발간된 대구 60년사 자료는 당시 대구 중앙도서관이 발간한 정기간행물 <도서관보>에 수록된 기사 중 하나로 60년 역사를 간략히 정리하였다(이효봉 1979). 당시 도서관 직원이 작성한 이 기사는 체계적인 연구에 기초하여 기술한 것이 아니다보니 내용이 전반적으로 빈약하고 소수의 자료에만 기초해 기술하다보니 출처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내용에서도 오류도 다수 발견되었다. 하지만 대구부립도서관에 대한 기록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대구부립도서관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기술된 것은 <대구중앙도서관 80년사 1919-1999>(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1999)이다. 이 자료의 일제강점기 부분에

서는 대구부립도서관의 설립과 청사 이전 및 신축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였고, 대구부립도서관의 현황을 규정과 내규, 직제와 직원, 예산, 자료관리 열람봉사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전과 달리 대구부립도서관과 그 이후까지 80년에 걸친 역사를 다양한 문헌을 참고하여 상세히 기술한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이전의 관련 자료와 60년사에서 비롯된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한계도 보이고 있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대구중앙도서관 100년사 1919-2019>의 일제강점기 대구부립도서관 기술 부분은 이전 80년사의 자료를 큰 수정이나 보완을 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이전의 오류는 계속 유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대구 중앙도서관의 공식 역사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전에 제시되지 않은 자료들을 폭넓게 참고하고 상호 비교 검증하여 과거의 오류들을 수정하여 대구부립도서관의 역사를 최대한 정확히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

3. 대구부립도서관 건물의 변천과정

3.1 도서관 설립 촉구

대구의 근대 도서관 역사는 1919년 8월 10일 대구부립도서관의 개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도서관이 개관하기 이전인 1915~1918년에 전국에는 사립과 공립을 합쳐 부산, 논산(강경), 경성, 인천 등 총 15~16개 정도의 도서관이 설립되어 있었지만, 대구를 포함한 경북에는 도서관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에

서 경북의 핵심지역인 대구부에도 도서관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어느 정도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대구부에는 서점 1곳만이 존재할 뿐이었는데, 도시의 성장에 걸맞게 대구부에도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부산일보>¹⁾의 1915년 4월 18일과 20일, 그리고 1916년 12월 20일과 21일 등 2년 사이 2차례의 걸쳐 상당한 분량의 연재 기사를 통해 표출되었다.

1915년 4월 부산일보의 “도서관을 건립하자, 어대전(御大典, 일왕 즉위) 기념사업으로”(1), (2) 기사에서는 경북의 제일의 요지이자 지방 행정의 중심인 대구에 도서관이 없이 서점 1곳만 있는 것은 모순이며 부끄러운 일이므로 1915년 가을 어대전 기념사업으로 대도회지에 걸맞은 도서관을 건립하자고 주장하였다. 1916년 12월 부산일보의 “도서관을 설립하자” (1), (2) 기사에서는 당시 인구 3만의 대구는 도청과 부청, 우편국과 사법기관, 병원, 정차장, 은행 등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과 전화와 전등 같은 도시의 물질 기반은 잘 갖추었지만 도서관이 하나 없어 정신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파행적 발전을 이룬 상태라고 진단하였고, 시민의 정신적 발달은 도시에 설립된 도서관의 분주함

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하루 속히 도서관 설립을 희망한다고 주장하였다.

3.2 도서관 설립 준비

3.2.1 도서위원 위촉

대구부립도서관 설립을 위한 준비활동은 관련 위원회의 구성에서 시작되었다. 매일신보 1919-05-16 기사에 의하면, 대구부는 부립도서관 설립을 준비하면서 신간서적을 구입하고 독자의 장서 기부를 추진하는 한편으로 수십 명의 도서위원으로 구성된 자체적인 위원회를 조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대구부는 도서관의 장서확충을 위해 지역 내 유지들을 도서위원으로 위촉하고 그들로 하여금 도서 기증이나 장서구입비를 기부받기 위해 위원회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3.2.2 경상북도 지사의 인가

관련 자료들²⁾을 비교, 분석한 결과, 대구부립도서관 설립에 관한 법적, 행정적 근거 마련의 첫 단계인 경상북도지사의 인가는 1919년 7월 29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부산일보(釜山日報)는 일제강점기 부산 지역의 일본인들이 발행한 일본어 신문으로 1907년 10월에 창간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경성일보(京城日報), 조선신문(朝鮮新聞)과 더불어 3대 일본어 신문으로 불렸다고 한다. 이 시기의 부산일보 기사에는 대구, 경북지역의 기사도 많이 게재되어 있다.

2) 참고한 주요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大邱府. 1922. 『大邱府勢一斑』. 大邱: 大邱府(국립중앙도서관 목록과 달리 본문에는 대정12년(1923) 8월 편찬으로 기록); 都甲玄卿. 1923. 大邱府立圖書館に就て - 開館準備の忙中より, 『慶北』, 2(9)(이 자료는 일본의 齋藤實記念館이 제공하였음); (대구부). 1922. 『대구부 도서관 조례 중 개정의 건』. 대구: 대구부(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02877-0026891834이며, 실제 공문의 연도는 1923년); 大邱府立圖書館. 1927. 『圖書目錄』. 大邱: 大邱府立圖書館; (朝鮮之圖書館). 1934. 朝鮮圖書館界. 『朝鮮之圖書館』, 4(2): 達捨藏. 1936. 『慶北大鑑』. (대구): [發行者不明]; 大邱府. 1937. 『大邱府社會事業要覽』. 大邱: 大邱府; 大邱府. 1942. 大邱府圖書館條例, 『大邱府例規類集』. 大邱: 慶尙北道大邱府; 大邱府. 1943. 『大邱府史』. 大邱: 大邱府(이서적은 2009년에 <개화기의 大邱府史>(대구경북연구원)로 번역); 이효봉. 1979. 도서관 60년사. 『도서관보』, 4: 21-30; 대구시사편찬위원회. 1995. 『대구시사 제1권 통사』. 대구: 대구광역시; 대구시사편찬위원회. 1995. 『대구시사 제5권 문화』. 대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1999. 『대구중앙도서관 80년사 1919-1999』. 대

〈표 1〉과 같이 1937년에 발간된 〈大邱府社會事業要覽(대구부사회사업요람)〉 이후의 여러 자료에서 일관되게 기술되었다.

3.2.3 대구부립도서관 조례의 제정

대구부립도서관 조례 제정에 대해 언급한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 조례 제정일은 〈표 2〉와 같이 크게 1919년 제정과 1918년 제정으로 나뉘었다. 〈대구시사〉(1995년) 이후 비교적 최근의 자료들에서는 1918년 8월 10일에 대구부윤이 조례를 제정하고 약 1년이 지난 1919년 7월 29일에 경상북도지사의 인가를 얻은 것으로 기술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대구부립도서관 조례의 개정 관련 자료들을 통해 오류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직 대구부립도서관 조례의 제정 원본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개정된 조례

에 포함된 제·개정에 관한 연혁정보를 통해서 대구부도서관조례는 1919년 8월 10일에 제정된 것을 알 수 있었다. 1923년 〈대구부도서관조례 중 개정의 건〉 공문(표지 누락, 국가기록원 소장)과 1937년 〈대구부사회사업요람〉, 1942년 〈대구부예규류집〉 등에는 각각 당시의 대구부립도서관 조례가 수록되어 있고 여기에 조례의 연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모두 1919년 8월 10일에 제정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기록원의 조선총독부기록물 DB를 통해 찾은 타 부립도서관 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문서들³⁾을 비교한 결과, 모두 부윤의 상급자인 도지사 명의로 조선총독에게 제·개정된 조례의 내용과 그 공포(발포)에 대해 보고하는 공문들이었는데, 제·개정된 조례의 공포 이전에 도지사의 인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조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대구부의 도서관 조례가 제정된

〈표 1〉 경상북도 지사의 대구부립도서관 설립 인가 관련 기술

출처		연도	기술 내용
대구부사회사업요람		1937	대정8년(1919) 7월 29일 경북도지사 인가
대구부사		1943	
도서관보 제4호		1979	
대구시사	제1권 통사	1995	
	제5권 문화		
대구중앙도서관 80년사		1999	
대구부립도서관과 일제의 식민지정책		2001	
일제치하 도서관과 사회교육		2010	
대구중앙도서관 100년사		2019	

구: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김남석, 2001. 대구부립도서관과 일제의 식민지정책.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4): 1-23; 김남석, 2010. 『일제치하 도서관과 사회교육』. 대구: 태일사;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2019. 『대구중앙도서관 100년사 1919-2019』. 대구: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3) 부산부 도서관과 관련된 〈도서관조례 중 개정의 건〉(1922), 마산부 도서관과 관련된 〈도서관 조례 발포 보고〉(1922)와 평양부립도서관과 관련된 〈부조례 발포의 건 보고(부립도서관 사용조례)-평양안남도〉(1922), 〈부에 관한 보고(경성부립도서관사용조례 중 개정의 건) 경기도〉(1931) 등을 살펴보았다.

〈표 2〉 대구부립도서관 조례 제정 관련 기술

출처	연도	기술 내용	비고
대구부도서관조례 중 개정의 건	1923	- 대정8년(1919) 대구부조례 제5호 대구부도서관조례를 좌와 같이 개정함. 대정12년 10월 4일	국가기록원 원문
도서목록	1927	- 대구부도서관조례의 내용만 있고 제정연도에 관한 정보는 없음	국립중앙도서관 원문
대구부사회사업요람 중 대구부도서관조례	1937	- 대정8년(1919) 8월 10일 조례 제5호(조례 연혁 정보에 제정일 표기)	국립중앙도서관 원문
대구부예규류집 중 대구부도서관조례	1942	- 대정8년(1919) 8월 10일 조례 제5호(조례 연혁 정보에 제정일 표기)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원문
대구시사 제5권 문화	1995	- 1918년 8월 10일 당시 대구부 조례 제5조(호의 오독)로 대구시립도서관 사용 조례가 공포	-
대구중앙도서관 80년사	1999	- 1918년 8월 10일 대구부조례 제5조(호의 오독)에 의거 대구부립도서관 사용조례를 공포	-
대구부립도서관과 일제의 식민지정책	2001	- 1918년 8월 10일 대구부조례 제5조(호의 오독)에 의거 그 근거를 마련	-
대구중앙도서관 100년사	2019	- 1918년 8월 10일 대구부조례 제5조(호의 오독)에 의거 대구부립도서관 사용조례를 공포	-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경북지사의 인가를 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대구부도서관조례〉는 1919년 7월 29일에 경상북도지사의 인가를 얻고 나서 1919년 8월 10일에 제정되었다는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3.3 최초 개관

3.3.1 공진회 진열관 용도 건물에서 개관

대구부립도서관은 비록 일제의 지방행정기관이지만 관(대구부) 주도로 설립된 최초의 국립 공공도서관으로 1919년 8월 10일에 개관하였다. 이 개관일자에 대해 관련 자료들의 기술

내용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⁴⁾

최초 개관 당시의 대구부립도서관은 독립된 청사없이 대구시 상정(현 포정동)에 있던 경상북도청(현 경상감영공원) 내 물산진열관 뇌경관(賴慶館)의 상층을 빌려 개관하였다가 도청사 관리사정으로 인해 개관 5개월 여만인 1920년 1월 24일 또다시 상정의 일본인 재향군인집회소(재향군인회관) 구내 공진회 진열관으로 이전하였다는 것이 현재까지 널리 알려진 바이다. 이는 〈大邱府史(대구부사)〉(1943)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로 비교적 최근의 연구와 관련 자료들이 이를 기초로 하여 뇌경관 상층에서 도서관이 처음 개관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시기의 여러 자료들을 살

4) 다만, 일부 자료 〈朝鮮總督府統系年譜(조선총독부통계연보)〉 중 전국 도서관 통계에서 대구부립도서관이 독자적으로 기술되었던 14개년치의 통계 중 11개년치에서 1919년 7월 설립으로 기록되었고, 도서관계 잡지인 〈조선지도서관〉에서도 7월 설립이 2차례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경북지사의 대구부립도서관 설립 인가를 기술한 것으로 추정된다.

펴보면 대구부립도서관의 최초 개관 장소가 뇌경관이라는 기술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대구부립도서관이 뇌경관에서 이전하였다고 전해진 당시 경상북도청에 바로 인접한 일본인 재향군인집회소 구내(또는 인근 국유지)에 공진회 진열관 용도의 조립식 형태의 건물이 대구부립도서관이 최초로 개관한 장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1923년 8월 대구부가 발행한 〈대구부세일람〉 내 〈大邱府府勢一覽(대구부부세일람)〉⁵⁾과 1930년 7월 22일 부산일보 기사, 1934년 〈조선지도서관〉(제4권 제2호)의 기사, 1937년 〈대구부사회사업요람〉 등의 자료들에 기술된 내용에 기초하면, 1919년 8월 10일에 최초로 개관한 대구부립도서관의 장소는 기존에 알려졌던 경북도청 구내 뇌경관으로 보기 어렵다. 1917년에 준공한 뇌경관은 당시 어대전 기념사업으로 건축된 세련된 서양식 2층 석조건물로 오늘날의 백화점과 유사한 물산진열관 용도로 사용되었다. 준공식에는 당시 내무부장관도 참석하여 조선총독의 축사를 대독(매일신보 1917-07-04)할 정도로 당시 대구와 경북에서는 상징적인 건물이었다.

이러한 뇌경관 건물과 위 자료들에 언급된 “조선식 2층집”, “목조의 구 가옥”, “마분지 등 종이 재료” 등은 완전히 상충되므로 대구부립도서관 최초 개관시의 건물은 뇌경관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⁶⁾

1943년 〈대구부사〉 이후 물산진열관인 뇌경

관 상층에 대구부립도서관이 설치되었다는 내용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 대구부립도서관 개관을 얼마 앞둔 시기에 뇌경관 상층에 부립도서관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소규모 도서실 또는 신문잡지 종람소 설치를 위한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1918년 4월 24일자 부산일보 기사에 따르면, 1917년에 물산진열관으로 건축된 뇌경관의 면목을 일신하는 과정에서 건물 2층의 한 모퉁이에 키크연소를 두고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면서 근처에 신문과 잡지 열람실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당시 대구에 신문과 잡지를 공개한 곳은 대구역 1개소 밖에 없었고 그나마도 신문이 위주고 잡지는 겨우 12책 정도로 적었으며, 보관상태가 좋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차에 뇌경관을 정비하면서 2층의 일부를 청소년과 성인, 남성과 여성을 모두 고려하여 여러 종류의 잡지와 신문을 구비한 소규모의 도서실을 설치할 계획하였다고 해당 기사는 전하였다.

그 후의 상황은 다른 보도가 없어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 계획의 실행을 전제로 하면, 1918년 중에는 신문과 잡지 열람을 위한 도서실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을 뇌경관에 대구부립도서관을 설치한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당시 경상북도청을 중간에 두고 일본인 재향군인집회소와 뇌경관이 좌우에 인접해 위치한 것도 그러한 인식을 뒷받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대구부세일람〉의 원문은 2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Vol.1은 길게 이어진 종이를 접이식으로 만든 자료로 〈대구부부세일람〉이라는 제목으로 대정12년(1923년) 8월 편찬으로 표기되어 있다. Vol.2는 〈대구부세일람〉이라는 제목으로 책자형태이며, 소화11년(1936년) 9월 30일 발행으로 표기되어 있다.

6) 1923년 8월 대구부가 발행한 〈대구부세일람〉에서도 뇌경관은 서양풍의 2층 건물로 경상북도 내의 생산품을 진열하였다고 언급되었을 뿐 도서관으로 사용되었다는 언급은 전혀 없다.

〈표 3〉 대구부립도서관 최초 개관 관련 기술

출처	연도	기술 내용	비고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19-1932	- 전국 도서관 통계에서 대구부립도서관 창립연월은 거의 1919년 7월로 표기(2번은 8월, 1번은 10월 표기)	-
대구부세일반 내 대구부세일람	1923	- 원래 조선식 2층집(관공루)을 도서관으로 충당. 대정8년(1919년) 8월 10일에 개관했는데, 해당 건물은 붕괴될 우려가 있었음	뇌경관에 대한 언급 없음
경북	1923	- 대정8년(1919) 창설. 상정에 있던 구관(재향군인집회소)에서 신관(신축건물)으로 이전 준비 중	
부산일보	1930(7.22)	- 대구부립도서관은 처음 대정 7년(1918) 10월 도 물산공진회 후에 건물 1동을 무상으로 (대구)부에 보관 전환을 받아 대구재향군인집회소와 인접한 국유지에 건설하고 도서관으로 충용(충당), 도서는 유지의 기증과 (대구)부비로 구입	
조선지도서관	1934	- 대정8년(1919) 7월 창립. 목조의 구 가옥을 이용하였고, 건평이 겨우 20평 정도이며 장서수도 1천권 미만	
경북대감	1936	- 대정8년(1919)에 창립	
대구부사회사업요람	1937	- 대정8년(1919) 7월 29일 도지사 인가를 얻고 대구부 상정의 현 재향군인회관 구내에 개관. 이 건물은 원래 공진회의 진열관으로 지어져 지붕 등도 미분지 등 종이 재료를 사용해 파손이 심함	뇌경관에서 개관했다고 언급
대구부사	1943	- 1919년 8월 10일 신설된 대구부립도서관은 경상북도청 구내의 뇌경관의 2층을 빌려 개관. - 1920년 1월 24일 상정(포정동)에 있는 현 재향군인회관 구내로 이전. 이 건물은 원래 공진회 진열관의 하나로 세운 영남관이었으나 허술한 재료로 축조되어 파손이 두드러짐	
도서관보 제4호	1979	- 1919년 8월 10일 개관(도청 구내 뇌경관 상층 차용)	
대구시사 제5권 문화	1995	- 구 경상북도청 구내 뇌경관 상층을 차용하여 1919년 8월 10일 전국에서 세번째로 도서관 개관 - 1920년 1월 24일에는 도청사 관리문제로 구내의 공진회 진열관(일인 재향동인(군인의 오타 추정)회관)으로 이관	
대구중앙도서관 80년사	1999	- 1919년 8월 10일 독립된 청사없이 구 경상북도청 내 뇌경관의 상층을 빌려 개관 - 1920년 1월 25일 도청사 관리사정으로 상정(포정동)에 있는 공진회 진열관으로 이전	
대구부립도서관과 일제의 식민지정책	2001	- 구 경상북도청 구내 뇌경관 상층에 건평 약 20평으로 동년(1919) 8월 10일 대구부립도서관을 개관 - 1920년 1월 24일 도청사의 관리사정으로 도청구내 공진회 진열관(일본인 재향군인회관)으로 이관	
일제치하 도서관과 사회교육	2010	- 구 경상북도청 구내 뇌경관 상층에 건평 약 20평으로 동년(1919) 8월 10일 대구부립도서관을 개관 - 1920년 1월 24일 도청구내 공진회 진열관(일본인 재향군인회관)으로 이관	
대구중앙도서관 100년사	2019	- 1919년 8월 10일 독립된 청사없이 구 경상북도청 내 뇌경관의 상층을 빌려 개관 - 1920년 1월 25일 도청사 관리사정으로 상정(포정동)에 있는 공진회 진열관으로 이전	

3.3.2 공진회 진열관 건물의 특징과 규모

그렇다면 대구부립도서관이 최초로 개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진회 진열관 건물은 어떤 건물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구부세일반>에서는 조선식 2층집(관풍루), 부산일보 기사에서는 물산공진회 후에 건물 1동을 받아 일인 재향군인집회소 부근에 설치한 건물, <조선지도서관>에서는 건평 20평 정도의 목조 구 가옥, <대구부사회사업요람>에서는 지붕 등도 마분지 등 종이 재료를 사용한 공진회의 진열관 용도의 건물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대구부사>에서는 1920년 1월 24일에 이전한 건물로 소개한 공진회 진열관 건물은 영남관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며 허술한 재료로 축조되어 파손이 심하였다고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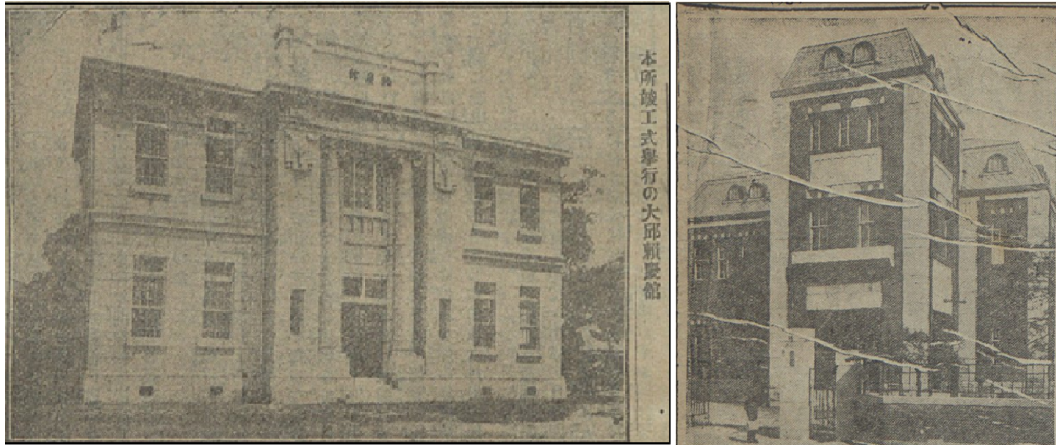
위 내용을 정리하면 이 건물은 도서관 용도가 아니라 1918년 10월 31일~11월 19일에 경북도청에서 직선거리로 3km 가량 떨어진 대구 동운정(東雲町) 일대에서 개최된 제2회 경북물산공진회(慶尙北道物産共進會)⁷⁾⁸⁾를 위해 설치된 건물로 파악된다. 공진회 건물은 현대의 각종 박람회에서도 보는 것처럼 체계적인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일시적 용도의 임시 건물 형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매일신문 기사(1918년 6월 7일자)를 보면, 경상북도는 경북 공진회 용도의 건물을 후쿠오카 공진회로부터 구입 후 운반하여 경북 직영으로 설치하기

로 결정하고 조만간 직원을 파견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이를 보면, 공진회의 건물 중 일부는 설치 후 해체, 이동하여 재설치가 가능한 조립식 건물일 것으로 추정되며, 조립식이었기 때문에 건축 재료도 목재와 마분지 등이 사용되어 일시적이 아닌 장기간 사용에는 상당히 하자가 많고, 특히 도서관 건물로는 매우 부적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운정 공진회장에서 진열관 용도로 사용된 이 조립식 건물은 공진회 이후 해체되었다가 도청 옆 재향군인회관 구내 또는 인접 국유지에서 다시 조립되어 도서관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조립식 건물의 형태와 관련해 <대구부세일반>에서는 조선식 2층집(관풍루)라고 표현하였고, <대구부사>에서는 공진회의 진열관 건물 중 하나인 영남관이라고 기술되어 이 건물이 서양식이 아닌 조선의 전통적 건물 형태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제2회 경북물산공진회 이후 발간된 <경상북도물산공진회사무보고(慶尙北道物産共進會事務報告)>(慶尙北道 1919, 56: 310)에 따르면, 지역상공인들로 구성된 대구부협찬회가 공진회 관람 내빈과 기타 우대자 접대 용도로 영남관을 설치하였는데, 이 건물은 “순 조선식” 2층 누(樓) 건물로 영남에서 이름을 따 영남관(嶺南館)이라 명명하였다고 한다. 이 건물은 간구(間口, 폭) 8칸, 오행(奥行, 깊이) 5칸에 면적은 54평으로 파악

7) 공진회는 1879년 일본에서 고안된 자국 내 소규모 박람회 성격으로, 대규모 전시를 하는 박람회와 달리 특정 물산을 집중 전시하는 행사인데, 국내적, 지방적 행사일 경우에 주로 명명되었다. 그러나 메이지 후기에 오면서 점차 대형화되어 박람회와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다고 한다. 대구에서는 1913년 11월 5일 ~ 19일에 제1회 경북물산공진회와 1918년 10월 31일 ~ 11월 19일에 제2회 경북물산공진회가 개최되었다. 그 후에도 1926년 경북임산공진회, 1928년 대구점두공진회/물산진흥전람회 등이 대구에서 개최되었다(정윤희 2016, 1-21).

8) 제2차 경북 공진회 장소는 대구부 동운정 잠업강습소를 중심으로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였으며 총 면적은 20,500여 평에 달하며 여러 진열관과 건축물이 설비되었다. 상정에 위치한 뇌경관도 당시에 행사장으로 사용되었다(慶尙北道 1919, 43; 정윤희 2016, 19).



〈그림 1〉 물산진열관 뇌경관(좌)과 1919년 신축된 대구부립도서관 건물
출처: 부산일보

되었다.⁹⁾ 한편, 1982년 3월 4일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3호로 지정된 관풍루(觀風樓)는 1601년(선조 34) 대구에 경상감영이 설치되면서 선화당(宣和堂)의 남서쪽에 세워진 포정문(布政門) 위에 만들어진 문루(門樓)이다. 앞면 3칸, 옆면 2칸 규모의 2층 누각이며, 건물 4면에 난간이 설치되었고 뒤편에 계단이 설치되었다.¹⁰⁾ 관풍루는 1906년 대구 읍성이 헐리면서 현 달성공원으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대구부세일반>의 “조선식 2층집(관풍루)”라는 표현은 실제 관풍루를 도서관으로 사용했다는 의미는 아니며, 해당 건물이 관풍루의 형태를 모방하였기에 그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3.4 건물 신축

3.4.1 신축 규모

공진회 진열관 용도의 조립식 건물에서 힘겹게 도서관을 운영하던 가운데, 대구부립도서관은 마침내 최신 건물을 신축하여 도서관을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대구부세일반> 내에 포함된 <대구부부세일람>에 따르면, 공진회 진열관의 조립식 건물에 대한 불편과 공간 협소의 애로사항을 알리는 것이 성과를 거두어 마침내 대구부청 구내에 건물을 개축하였다고 전하며, <도서관보> 제4호에서는 독립건물도 없이 전전하며 뿌리를 내리지 못하던 대구부립도서관의 처참한 상황은 시민들의 마음에 변화를 불러왔고,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시립도서관건

9) 이 자료의 43쪽에 있는 당시 회장의 일람도에는 영남관이라는 명칭 대신에 “대구협찬회사사무소 동 접대소”로 표기되어 있다.
10) 대구광역시 서구청 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s://www.dgs.go.kr/tour/page.php?mnu_uid=12220 접근 2020. 07. 20;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Cpno=3412200030000&pageNo=1_1_2_0 접근 2020. 07. 20

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관계기관과 활발한 교섭 끝에 마침내 독립청사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경북〉의 기사, 〈조선지도서관〉, 〈대구사회사업요람〉, 〈대구부사〉, 〈도서관보 제4호〉, 〈대구시사〉 등에 의하면, 신축 도서관 청사는 대구 중구 동인동 당시 대구부청 구내에 대지 1,325평, 연건평 113평의 근대식 연와조¹¹⁾ 지상 2층 건물로 건립되었다. 본 건물의 정면 현관 상부는 3층으로 건립되었는데, 현관 모양을 반딧불이의 머리 모양으로 조각하였고 현관을 중심으로 한 양쪽을 반딧불이의 눈을 상징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면의 각 모서리 기둥 상단과 주 출입구 부분의 3층 창 아래의 소벽에는 반딧불이 모양을 양각하여 장식하여 전반적인 건물의 외관을 형설의 공을 상징하게 하였다(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2019, 164). 그리고 본 건물 외에 연건평 50평 규모의 부속가옥(소사실과 창고, 화장실 등)도 함께 건축되었다.

이 건물의 당시 총공사비는 〈경북〉에는 3만 수 천원, 〈대구부세일반〉 내 〈대구부부세일람〉에는 33,000원, 〈대구부사회사업요람〉에는 3만원, 〈대구부사〉에 33,000원, 〈부산일보〉 1930년 7월 22일자에는 부비 33,000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를 통해 건립 당시의 총공사비는 30,000~33,000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공사비의 출처는 〈부산일보〉와 같이 대구부의 부비라고 밝힌 것도 있지만, 〈경북〉에는 당시

의 대구부윤 松井信助(송정신조)가 부임 직후부터 도서관 설립 계획을 세우고 당시 시의회 격인 대구부협의회 회원의 협찬과 일반유지의 찬조 등을 받아 설립한 것으로 밝히고 있고 〈도서관보 제4호〉에 시립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며, 김남석 등의 연구에서도 부협의회원과 일반 유지의 찬조금 3만 수천원을 투입했다는 내용도 존재하여 부비 외에 찬조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높지만 현재까지 도서관 총공사비의 출처를 명확히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다.¹²⁾

1923~2019년의 대구부립도서관 건립과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여러 자료들은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차이를 보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구부립도서관 최초 건물의 건립과정을 관련 자료들과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미시적으로 세분하여 대구부립도서관의 착공과 증축, 이전 등에 관한 기존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사실에 기초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관련 자료에 기초한 대구부립도서관의 건립과정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3.4.2 착공

대구부립도서관의 착공일만 보더라도 관련자료 사이에 서로 엇갈리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검증이 필요하다. 착공에 관해 〈대구사회사업요람〉(1937)과 〈대구부사〉(1943)의 1923년 착공,

11) 불에 구운 벽돌로 쌓아 올린 구조.

12)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의 도서관 통계 중 대구부립도서관 부분을 살펴보면, 1922년에 입시비가 17,158원(엔)이 지출되었고 그 이후 1932년까지 2회만 입시비가 지출되었고 각각 1천원을 넘지 않았다. 1922년의 입시비는 시기와 금액상 도서관 건축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만일 그러하다면 총공사비의 나머지인 16,000원은 부비 이외로 기부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써는 대구부립도서관 공사비의 출처는 전액 부비이거나 전액 기부금일 가능성보다는 일부 부비에 일부 기부금을 더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표 4〉 대구부립도서관의 신축건물 건립 관련 기술

출처	연도	대구부립도서관의 독립청사 건립 관련
조선시보(8.11)	1923	- 준공: 8월 9일 대구부도서관 누상에서 소방직원 표창(낙성식 표현없음)
매일신보(8.13)	1923	- 준공: 8월 9일 대구도서관 누상에서 성대한 낙성식, 소방직원 표창
경북(잡지)	1923	- 준공: 1923년 6월 - 이전: 1923년 7월 14일 이전 및 현재 개관 준비 중 - 개관: 1923년 10월 중으로 예정
대구부세일반 내 대구부세일람	1923	- 착공: 대정11년(1922) 부청 구내에 개축 - 준공: 대정12년(1923) 3월 25일 준공 - 이전: 대정12년(1923) 7월 16일 이전
경성일보(1.22)	1924	- 개관: 2월 11일 기원절에 성대한 개관식 예정
조선시보(2.10)	1924	- 개관: (2월) 11일(기원절) 오전10시~오후2시 관내 종람 허가 및 다과 제공 (개관식 표현은 없음), 12일 일반에 공개 열람
경성일보(2.11)	1924	- 개관: 일반 공개를 위해 (2월) 12일에 개관
조선일보(2.16)	1924	- 개관: 2월 11일 개관식 거행, 12일 일반관람 공개
조선지도서관	1934	- 준공: 대정 12년(1923) - 이전: 대정 13년(1924) 2월 신관으로 이전
대구부사회사업요람	1937	- 착공: 1923년 부청 구내에 신관 착공 - 준공: 1924년 4월 - 이전: 1924년 5월부터 이곳으로 이전
대구부사	1943	- 착공: 1923년 부청 구내에 신관건축에 착수 - 준공: 1924년 4월 - 이전: 1924년 5월 부립도서관을 이전
도서관보 제4호	1979	- 착공: 1923년 5월 7일 - 준공: 1924년 4월 - 이전: 1924년 5월 20일(개관식 경과보고서에 의해 파악)
대구시사	제1권 통사	- 이전: 1924년 부청 구내에 건물을 신축하여 다시 이전
	제5권 문화	- 착공: 1923년 5월 도서관 신축공사 - 준공: 1924년 4월
대구중앙도서관 80년사	1999	- 착공: 1923년 5월 - 준공: 1924년 4월 - 이전: 1924년 5월 20일 공진회 진열관에서 이전
대구부립도서관과 일제의 식민지정책	2001	- 착공: 1923년 5월 7일(출처: 도서관보 제4호) - 준공: 1) 매일신보 인용: 1923년 8월 9일 낙성 2) 출처불명(본문): 1924년 4월 준공, 5월 20일 이전, 개관 3) 출처불명(각주): 1923년 6월 낙성, 7월 14일부터 이전, 10월 개관 - 이전: 1924년 2월(출처: 조선지도서관)
일제치하 도서관과 사회교육	2010	- 이전: 1924년 5월 20일에 개관
대구중앙도서관 100년사	2019	- 착공: 1923년 5월 - 준공: 1924년 4월 - 이전: 1924년 5월 20일 공진회 진열관에서 이전

〈도서관보〉 제4호(1979)는 1923년 5월 7일 착공, 그리고 그 이후의 자료들이 대부분 1923년 5월 착공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첫째, 1923년 8월에 대구부가 편찬한 〈대구부세일반〉 내 〈대구부부세일람〉에 조선식 2층집(관풍루)을 도서관으로 사용하다가 건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대정11년(1922)에 33,000원을 들여 부청 구내에 개축했다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자료를 통해 적어도 1922년에는 착공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둘째, 1923년 8월 9일에 낙성식(준공식)이 개최되었다는 신빙성이 높은 신문기사 2건이 낙성식 직후에 보도되었다. 조선시보(1923-08-11)에서는 8월 9일 정오 대구부도서관 누상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전 소방직원 2명의 공적에 대해 표창하였다고 보도하였고, 매일신보(1923-08-13)는 대구부청 구내에서 신축 중이던 대구도서관이 이번에 준공하여 8월 9일 정오부터 도서관 누상에서 성대한 낙성식을 거행하고 전 소방직원 2명의 공적 표창식을 함께 실시했다고 보도하였다. 1923년 5월 착공을 언급한 자료들이 이 기사들에 비추어보면 단 3개월 만에 당시 33,000원이 투입된 세련된 석조 건물을 준공한 것이 된다. 당시에 유사한 규모로 건축된 대구 만경관(공사비 45,000원)을 보면, 1922년 8월 초에 착공하여 8개월 후인 1923년 3월 초에 준공하였다(동아일보 1922-08-13; 매일신보 1923-03-11). 그리고 대구의 뇌경관(공사비 10,419원)도 1916년 11월에 착공하고 1917년 6월에 준공하여 7-8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다(매일신보 1917-07-04;

매일신보 1928-11-08). 따라서 착공 3개월 만에 준공한다는 것은 유사 사례를 보더라도 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대구부세일반〉 내 〈대구부부세일람〉의 1923년 3월 25일 준공과 〈경북〉의 1923년 6월 낙성에 대한 언급을 검토하면 1923년 5월 착공 주장은 더욱 기각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표 5〉의 〈조선총독부통계연보〉 내 도서관통계 중 대구부립도서관 부분을 살펴보면, 1922년에 임시비가 17,158원이 지출(1923년 임시비 미지출)된 것은 그 해 도서관 건립 공사에 관련된 특별한 지출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1922년에 착공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¹³⁾ 또한 이는 앞의 〈대구부세일반〉 내 〈대구부부세일람〉에 1922년에 부청 구내에 개축했다는 표현과 일맥상통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알려진 1923년 5월 착공은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며, 〈대구부세일반〉 내 〈대구부부세일람〉이나 조선총독부 통계, 낙성식 관련 언론보도 등을 참고하면 대구부립도서관은 1922년도부터 착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착공일이 명시된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아 착공일자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3.4.3 준공(낙성)

대구부립도서관 신축 건물 준공에 대해 〈대구부세일반〉 내 〈대구부부세일람〉(1923)은 1923년 3월 25일 준공, 〈경북〉의 기사(1923. 9)는 1923년 6월 준공, 〈조선지도서관〉(1934)은 1923년 준공, 〈대구부사회사업요람〉(1934)과 〈대구부사〉(1943), 그리고 이후의 자료들은 대체

13) 대구부립도서관의 독자적 통계가 제공된 조선총독부의 1919년~1932년 통계에서 임시비는 단 3회가 있었으며, 1922년 외 2회는 1926년 150원, 1928년 950원 규모로 1922년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표 5〉 〈조선총독부통계연보〉 중 대구부립도서관 관련 통계

연도	창립연월	도서책수		개관일수 (일)	열람인원 (인)	수입(원)		지출(원)	
		화한서(책)	양서(책)			열람료	기타	경상비	임시비
1919	대정 8년 7월	2,701	56	229	5,106	-	405	1,659	-
1920	대정 8년 10월	2,764	123	295	8,410	-	670	3,560	-
1921	대정 8년 8월	3,156	134	304	9,094	-	357	3,129	-
1922	대정 8년 8월	3,579	142	301	8,463	-	30	1,890	17,158
1923	대정 8년 7월	4,920	80	41	1,871	60	-	9,001	-
1924	대정 8년 7월	5,375	80	301	5,735	145	-	8,477	-
1925	대정 8년 7월	5,257	165	288	6,385	134	-	5,188	-
1926	대정 8년 7월	5,810	183	291	8,044	164	85	4,947	150
1927	대정 8년 7월	6,470	186	294	10,640	214	5	5,321	-
1928	대정 8년 7월	7,031	196	291	8,982	179	-	5,326	950
1929	대정 8년 7월	7,662	196	290	8,052	162	-	5,326	-
1930	대정 8년 7월	8,753	238	292	8,438	171	-	5,260	-
1931	대정 8년 7월	9,151	262	293	15,748	143	-	5,424	-
1932	대정 8년 7월	9,737	266	289	5,154	114	-	4,830	-

* 1933년부터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는 개별도서관 통계 대신에 시도별 통계를 수록하였는데, 대구부립도서관도 경상도서관과 함께 경북으로 합산되어 독자적 통계는 파악이 불가능

로 1924년 4월 준공으로 기술하여 관련자료 사이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준공일자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앞의 착공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낙성식과 함께 진행된 소방관 표창식이 거행된 직후의 언론보도를 보면 대구부립도서관의 준공식 일자 1923년 8월 9일이 가장 정확해 보인다.¹⁴⁾ 조선시보(1923-08-11)와 매일신보(1923-08-13) 모두 “1923년 8월 9일 정오”에 “대구부도서관”에서 소방관 표창 또는 도서관 낙성식과 소방관 표창이 있었다고 보도하였는데, 행사 직후의 보도는 일정변경이 가능한 행사 이

전의 보도에 비해 신뢰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언론보도 외에 대구부립도서관 조례의 변화에서도 개관시기에 대한 약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1919년 8월 10일 제정된 대구부립도서관 조례가 1923년 9월 25일에 1차 개정되었는데, 이는 이 시기에 대구부립도서관의 신축 건물이 완성되고 그와 관련한 개관시간의 조정, 기존 노후 건물에서는 받지 않았던 열람료 징수 등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¹⁵⁾

한편, 1923년 9월에 발행된 〈경북〉 잡지에 수록된 도감현경의 기사에는 대구부립도서관이 1923

14) 단, 실제 준공과 행사로써의 준공식(낙성식)이 분리되어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15) 대구부립도서관의 최초 조례는 현재 확인이 불가하나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는 1922년까지 열람료 수입이 0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23년 9월 〈경북〉(第2年 第9號)에 수록된 도감현경의 글에도 원래 도서관의 공개 열람에서 요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지만 무료로 무제한 열람 제공시 열람자에게 폐를 끼치고 질서가 혼란스럽지만 단속이 번거롭기 때문에 요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년 6월에 낙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도갑현경은 당시 도서관 근무자이고 투고 시점(1923년 8월 14일)도 자신이 언급한 낙성 시점과 멀지 않아 6월 낙성 언급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이와 비슷한 시기인 1923년 8월에 대구부가 편찬한 <대구부세일반> 내 <대구부부세일람>도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대구부립도서관이 1923년 3월 25일 준공되었다고 기록되어 위의 <경북> 잡지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작성 시점과 작성 주체 모두 신빙성이 높은 이 두 자료와 역시 신빙성이 높은 도서관 낙성식 개최 관련 언론보도를 모두 감안한다면, 대구부립도서관은 1923년 3월 또는 6월에 낙성하였지만 언론보도에 나온 낙성식은 별도의 행사로써 8월 9일에 거행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3.4.4 개관 지연 및 행사/회의용 대관

건물이 신축되면 준공(낙성)을 한 이후 실내의 필요한 추가 작업 등을 완료한 후 개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시 대구지역의 주요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대구부립도서관 신축 건물의 준공식과 개관식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¹⁶⁾ 경성일보 기사(1924-01-22)에는 대구부립도서관이 준공 이후에 여러 준비를 위해 시간을 보내다 개관이 지연되었는데, 대체적인 정리를 마무리하고 곧 개관식을 거행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고, 조선시보 기사(1924-02-10)에도 대구부립도서관이 준공 이후 개관을 위해 제반 준비 중인데 곧 마무리

가 되어 개관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이처럼 대구부립도서관은 1923년 8월 9일 준공식 이후 1924년 2월의 개관식까지 6개월 정도 걸렸는데, 다른 건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관을 위한 준비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정식 개관 이전이었지만 대구부립도서관의 신축 건물은 대구부의 행사장이나 회의장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시보 1923년 9월 26일자(26)를 살펴보면, 대구부립도서관 누상에서 대구신문협회 설립 준비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경성일보 1924년 2월 4일자에도 같은 장소에서 오늘날의 시의회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대구부협의회가 개최되었다고 보도되었다.

3.4.5 신축 도서관으로의 이전과 개관

대구부립도서관이 신축 건물로 이전을 완료하고 개관한 것에 대한 기록은 관련 자료마다 서로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 앞의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대구부세일반> 내 <대구부부세일람>(1923)은 1923년 7월 16일에 이전하였다고 기록하였고, <경북>의 기사(1923. 9)는 1923년 7월 14일에 상정의 구관에서 신관으로 이전하였고 투고 시점에서는 개관 준비 중이며 개관은 1923년 10월 중으로 예정이라 기술하였다. 그리고 <조선지도서관>(1934)은 1924년 2월에 이전, <대구부사회사업요람>(1937)은 1924년 5월부터 이전, <대구부사>(1943)는 1924년 5월에 이전, <도서관보> 제4호(1979)는 1924년 5월 20일에 이전(개관시 경과보고서에 의해 파

16) 매일신보 1917년 6월 19일자, 부산일보 1917년 7월 1일자, 매일신보 1917년 7월 19일자 기사 등을 보면, 경북도청 구내에 건축된 물산진열관 뇌경관의 낙성식은 당초 6월 27일에서 7월 1일로 변경되었고 진열 선반과 기타 준비를 7월말까지 완료하고 8월 1일경에 개관하고 공중에 개방할 것으로 나와 있다.

약), <대구시사 제1권 통사>(1995)는 1924년에 이전, 대구중앙도서관 80년사(1999)는 1924년 5월 20일에 이전, <대구부립도서관과 일제의 식민지정책>(2001)은 1924년 2월에 이전(인용: 조선지도서관 제4권 제2호), <일제치하 도서관과 사회교육>(2010)은 1924년 5월 20일에 개관, 대구중앙도서관 100년사(2019)는 1924년 5월 20일 이전 등으로 다양하게 기술되어 있다. 한편, <부산일보>(1930-07-22)는 대정12년(1923) 11월에 이전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대구부립도서관의 이전과 개관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을 개관하려면 이전이 선행되므로 대구부립도서관의 이전은 적어도 개관식이 열린 1924년 2월 이전이어야 한다. 따라서 <대구부세일람> 내 <대구부세일람>, <경북>의 기사, <조선지도서관>, <부산일보>를 제외한 1924년 5월 이전을 언급하고 있는 자료들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 중에서도 작성 주체와 작성 시점에서 신뢰성이 높은 <대구부세일람> 내 <대구부세일람>은 1923년 7월 16일, 투고

자가 당시 도서관 실무자였던 <경북>의 기사는 1923년 7월 14일에 이전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어 도서관 이전일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1923년 7월 14-16일에 이전한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신뢰할 만하다.

둘째, 이전 이후 대구부립도서관의 개관일은 1924년 2월 11일(오전 10시)로 나타난다. 당시의 개관식 관련 언론보도 4건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이 기사들을 종합하면, 대구부립도서관은 1924년 2월 11일 일제의 명절인 기원절에 개관식을 실시하였고, 2월 12일부터 일반의 열람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4건의 기사는 1월 22일자 외에는 모두 개관식 전달과 개관식 당일, 개관식 5일 뒤에 작성된 행사 보도 기사이므로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대구부립도서관이 1923년 7월 중순에 이전했다고 기록한 <대구부세일람> 내 <대구부세일람>과 <경북>의 기사 내용과 1924년 2월 11일 개관한 점을 고려한다면, 앞의 개관 지연을 언급한 신문기사처럼 대구부립도서관은 신축 건물로 이전한 후 개관준비에 반년

<표 6> 대구부립도서관 개관식 관련 신문기사 요약

신문/계재일	개관식 관련 기사 내용
경성일보 1924년 1월 22일자	대구부립도서관이 전체적인 정리를 완료하고 2월 11일 기원절(일제의 건국기념일 성격)을 맞아 성대한 개관식을 거행할 예정
경성일보 1924년 2월 11일자	대구부립도서관이 드디어 일반 공개를 위해 12일에 개관(개관식 당일 보도로, 다음날부터 일반 주민에게 공개한다는 내용)
조선일보 1924년 2월 16일자	“대구부 경영으로 부립도서관은 기(古) 건축이 이미 완료되어 거(去)년 11월 상오 10시에 부내 관민 약 2백여명을 초대하여 성대한 개관식을 거행하고 기(去)년(그 다음) 12월 오전 10시부터 일반관람을 공개하였다.”
조선시보 1924년 2월 10일자	대구부립도서관이 (2월) 12일 일반에 공개열람하고, 11일 기원절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관내 종람을 허가하고 다과도 제공(기원절 개관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타 보도와 맥락과 일치)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소요하였다.¹⁷⁾

3.5 증축과 추가 신축

대구부립도서관 건물을 신축한 지 8년여를 경과한 1932년에 본관 증축과 부속시설의 추가 신축이 실시되었음을 관련 자료들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 내용은 대구부립도서관이 면목을 일신하고자 벌인 열람실 증축 공사를 준공하였다고 보도한 <조선신문> 1932년 10월 23일 기사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이 과정에서 신문과 잡지 열람자를 위해 열람실 일부에 조선과 일본, 대만, 상해, 만주 등 각 지역을 망라한 일어, 언문(한글), 외국어 등으로 된 80여종의 신문을 비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관련 자료들은 <표 7>과 같이 본관 증축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증축 규모에서는 30평과 80평으로 양분되었다. 그 중 80평 증축으로 기술한 <대구부사회사업요람>이 내용에서 더 구체적인데, 신축된 직원 숙사의 규모가 13평이고, 본관 증축과 직원 숙사 신축에 소요된 비용이 총 8천원¹⁸⁾이라고 제시하고 있어 다른 자료에 비해 신빙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6 공간 축소와 조양회관 이전

3.6.1 공간 축소

위와 같이 대구부립도서관은 1932년 본 건물에 80평 증축되어 연건평이 총 193평으로 확

<표 7> 대구부립도서관의 증축 관련 기술

출처	연도	증축 관련 내용	비고
조선지도서관	1934	- 1932년 10월 본관 연건평 30평 증축	본관 30평 증가
대구부사회사업요람	1937	- 1932년 본관 증축(연건평 총 193평) 및 직원 숙사(13평) 신축. 초기부터의 총공비는 3만 8천원	본관 80평 증가 공사비 8천원 증가
대구부사	1943	- 1932년 본관 증축, 직원숙사 신축	-
대구중앙도서관 80년사	1999	- 1932년 말 본관 30평 증축, 직원숙사 신축	본관 30평 증가
대구부립도서관과 일제의 식민지정책	2001	- 1932년 10월 본관 30평 증축(출처: 조선지도서관 제4권 제2호)	본관 30평 증가
대구중앙도서관 100년사	2019	- 1932년 말 본관 30평 증축, 직원숙사 신축	본관 30평 증가

17) 한편,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나타난 대구부립도서관의 1923년 데이터를 살펴보면, 개관일수가 평년(300일 내외)과 달리 41일에 불과하고, 열람인원이 평년의 5-8천명과 달리 1,871명에 그치며, 1922년까지는 없었던 열람료 징수(1923년 9월 개정 조례) 수입이 60원 발생한 것을 종합하면 1923년에는 도서관 이전을 준비하는 작업으로 인해 상당 기간 도서관을 개관하지 않다가 1923년 말경에 신축 도서관 건물에서 열람료를 징수하면서 운영을 실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리고 1924년 데이터에는 개관일수는 301일, 열람인원은 5,735명, 열람료는 145원 등으로 나타나 신축 도서관 건물에서 평년과 같이 연중 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된다(열람자가 이전보다 조금 줄었으나 이는 열람료 징수의 영향으로 해석이 가능함). 이 통계 수치만을 근거로 하면, 대구부립도서관은 1923년 11월 중순 경에 새 도서관 건물에서 개관한 후 열람료를 징수하면서 1개월 조금 넘게 운영을 하였고, 1924년은 1월부터 정상 운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4건의 언론보도(2건은 개관식 다음날과 개관식 5일 후)가 동일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어 더 신뢰할 수 밖에 없다.

18) <대구부사회사업요람>에서는 초기 신축과 이후 총공비의 합이 38,000원이고, 신축 당시의 공사비가 30,000원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장되었고, 이를 통해 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6년 뒤인 1938년 11월 1일 상급기관인 대구부의 기구 개편의 영향으로 독립청사 공간의 일부를 대구부직할출장소를 위한 행정공간으로 제공하게 되었다.¹⁹⁾ 이에 관해 관련자료들은 <표 8>과 같이 일치된 진술을 보이고 있다. 정확히 어느 정도의 공간을 대구부에 제공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조치로 인해 대구부립도서관은 도서관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1979년 <도서관보>의 기사에서는 당시의 축소에 대해 “도서관은 타고난 불운이였는지 ... (중략)... 수많은 악조건과 험로를 극복하면서 근근히 마련한 청사에서 도서관으로써의 기능 발휘에 착근할 여가조차 없이 또다시 파란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크게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3.6.2 조양회관 이전

1938년 11월 1일 대구부 기구 개편의 영향으로 도서관 공간이 축소된 대구부립도서관은 그마저도 대구부의 행정부서(공영과와 산업과)에게 내어주고 대구부 신정(新町)에 위치한 조양회관(朝陽會館)으로 도서관을 이전하게 되었다. 조양회관은 1922년 서상일 등 대구의 민족지도자들이 민중과 청소년들에게 독립정신, 민족계몽운동 및 신 교육운동을 펼치기 위해 뜻을 모아 건립한 건물로, 당시 대구구락부, 대구여자청년회, 대구운동협회, 농촌봉사단체 등이 입주하였으며, 1927년 신간회 대구지회 설립대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김일수 2013, 26).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조양회관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직영하던 사진실과 인쇄시설도 타인에게 임대하고 도서실과 대강당을 통한 사회계몽 활동에만 주력하였다. 1940년대에는 일제의 말살 정책으로 건물 전체의 기능이

<표 8> 대구부립도서관의 독립청사 공간 축소 관련 기술

출처	연도	대구부립도서관의 독립청사 공간 축소 관련
도서관보 제4호	1979	- 1938년 11월 1일 대구시청(대구부청의 오류)의 기구변형에 따라 대구시 직할출장소가 도서관청사로 옮기게 되어 도서관 일부를 빌려주게 된다.
대구시사 제5권 문화	1995	- 1938년 11월 1일에는 대구시(대구부의 오류) 기구의 개편으로 도서관 일부가 대구시직할출장소로 사용
대구부립도서관과 일제의 식민지정책	2001	- 1938년 11월 1일 대구시(대구부의 오류) 기구개편으로 도서관시설의 일부를 대구시직할출장소로 사용
대구중앙도서관 80년사	1999	- 1938년 11월 1일에는 대구부의 기구 개편으로 도서관 청사 일부가 대구부직할출장소로 사용
일제치하 도서관과 사회교육	2010	- 1938년 11월 1일 도서관의 일부를 대구시직할출장소(대구부의 오류)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활동이 축소되기 시작
대구중앙도서관 100년사	2019	- 1938년 11월 1일에는 대구부의 기구 개편으로 도서관 청사 일부가 대구부직할출장소로 사용

19) 대구부립도서관의 공간 축소는 이보다 앞선 1928년 5월 1일에 도서관 건물 내에 당시 도서관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구부영 직업소개소가 개소하면서 경험한 바 있으나(부산일보 1928-05-05) 그 후 1932년 도서관 증축으로 인해 공간적 압박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지되다시피 하였고, 이후에는 일본 군대가 주둔하며 보급부대로 쓰이기도 하였다(이향원 2006, 20-22). 일제의 영향력이 조양회관에 미치기 시작한 시기에 대구부립도서관의 조양회관 이전이 결정되었는데, 조양회관 이전에 대한 1940년 7월 9일 동아일보의 기사(“대구부립도서관 조양회관으로 이전, 8월 중에는 실현될 듯”)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생략)... 금번 부내 신정(新町) 조양회관(朝陽會館)을 빌려서 그리로 옮기고 현재의 도서관에는 부 공영과(公營課)와 산업과(産業課)를 가져간다는데 목하 상부당국에 인가신청을 수속 중이라 한다. 도서관을 조양회관으로 옮기면 남녀별 독서실 등이 따로 될 수 있을 것이며 장소도 극히 한적하여 대구의 독서층을 위해 희소식이란 것이다. 이전은 8월 중순까지는 실현될 모양이다.”

이전의 관련 연구와 자료에서는 조양회관으로의 이전이 진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과정에서 찾아낸 1942년 8월 29일자 <황민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대구부는 부내에 박물관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그 위치를 신정에 있는 조양회관을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이미 그 일부를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 외의 부분을 박물관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당시 조양회관으로 대구부립도서관이 이전하였고,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정확히 언제 이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당시 조양회관이 위치한 대구 달성공원 입구는 대구부의 중심에서 벗어난 변두리이고 당시의 교통상황을 고려하면 앞의 신문기사에서 ‘장소가 극히 한적하다’고 할 정도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이전보다 좋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대구부민들의 도서관 이용은 이전하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1941년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의하면, 연간 열람인원이 15,273명(1일 평균 48명)으로 통계가 확인되는 직전 연도인 1939년의 연평균 16,516명(1일 평균 51명)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²⁰⁾

정확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태평양전쟁의 막바지에 대구부립도서관이 위치한 조양회관에는 일제의 보급 부대가 주둔한 것으로 알려졌다.²¹⁾ 관련 통계자료들을 보면, 1944년 가을까지는 부립도서관 운영이 지속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군대의 주둔은 1944년 겨울이나 1945년 봄 정도로 추측된다. 이처럼 대구부립도서관 건물이 군대의 주둔지로 변하면서 안타깝게도 사실상 대구부립도서관의 기능은 정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연구결과의 정리

본 연구를 통해서 대구부립도서관 건물의 변천과정에 대해 밝혀진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부립도서관의 조례 제정일을 바로

20) 이는 앞의 동아일보 보도처럼 1940년 8월경에 이전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21) “일제 때도 이승만 때도 구속... 박정희 때마저 기소당한 이 사람”, 오마이뉴스 2018.05.1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33351 (인용 2020. 9. 10.)

잡았다. 1995년 <대구시사> 이후의 자료들이 1918년 8월 10일에 대구부윤이 조례를 제정하고 1919년 7월 29일에 경상북도지사의 인가를 얻은 것으로 기술하였지만, 개정된 대구부립도서관 조례의 연혁정보를 통해 최초 조례는 1919년 7월 29일 경북도지사의 인가 이후인 1919년 8월 10일에 제정된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대구부립도서관의 최초 개관 장소가 뇌경관 상층이 아니라 인근의 일본인 재향군인 집회소 구내 또는 인근 국유지에서 공진회 진열관 용도의 목조 조립식 건물을 최초 도서관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기관의 공식 역사자료가 인용한 자료보다 이전에 간행된 4개의 자료에서 최초 개관 건물로 뇌경관을 언급하지 않고 붕괴 위험이 있는 목조의 구가옥을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대구부립도서관 신축 건물의 착공이 1923년이 아니라 1922년부터 착공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 찾은 자료와 조선총독부 통계, 낙성식 관련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1922년도부터 착공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넷째, 대구부립도서관 신축건물의 준공일을 1923년 8월 9일로 확인하였다. 이전 자료들은 준공에 대해 1923년 3월, 6월, 1924년 4월 등으로 서로 다르게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낙성(준공)식에 관한 언론보도 기사 2건을 통해 준공일을 특정하였다. 하지만 <경북>에 수록된 당시 도서관 담당자의 기사에서는 1923년 6월에, 대구부가 편찬한 자료에서는 1923년 3월 25일에 준공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실제 준공과 달리 별도로 준공식을 개최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대구부립도서관 신축 건물로의 이전을 1923년 7월 14-16일에 실시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관련 자료들이 1923년 7월 14일, 1923년 7월 16일, 1923년 10월, 1923년 11월, 1924년 2월, 1924년 5월, 1924년 5월 20일 등과 같이 서로 다르게 이전일을 기술하고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관식(1924년 2월)에 대해 보도한 여러 건의 신문기사와 1923년 7월 14-16일 이전을 언급한 두 자료의 작성자(도서관 담당자 또는 대구부)와 두 자료의 날짜 인접도를 고려하여 추정하였다.

여섯째, 대구부립도서관 신축 건물의 개관일을 1924년 2월 11일(오전 10시)로 특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관식 당시 언론보도 4건을 통해 일제의 경축일인 2월 11일 기원절에 개관식을 거행하고 2월 12일부터 일반에게 개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일곱째, 대구부립도서관의 조양회관 이전이 실제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전 자료들에서는 조양회관으로의 이전 예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 이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른 언론보도를 확인하여 실제 조양회관의 일부를 대구부립도서관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대구부립도서관은 국내에서 부산시민도서관에 이어 현존하는 2번째로 가장 오래된 공공도서관이며, 일제의 행정기관이었으나 관의 주도

로 건립된 최초의 공공도서관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당시 대구의 지식정보 생태계가 매우 취약하여 도서관은 하나 없이 서점 1곳과 대구역의 신문과 잡지 종랍소 1곳 정도만 존재하던 상황에서 대구부립도서관의 등장은 지역의 식자층과 학생 등에게 어느 정도 지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구부립도서관도 엄연히 일제의 행정기관 중 하나였기 때문에 당시의 책자형 도서 목록이나 분류표, 도서등록대장 등에서 일제의 조선 억압과 검열, 통제의 어두운 그림자가 깊숙이 드리워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2019, 176-186).

일제의 행정기관이라는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대구부립도서관은 일제강점기에 대구와 경북지역의 도서관사는 물론이고 현존하는 2번째로 오래된 도서관이라는 측면에서 국내 도서관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될 수 없으며, 따라서 지금까지 기관의 공식 역사자료 외에 1편의 연구논문만 실재한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성과와 기관의 공식 역사자료의 성과 위에서 과거에 접근하지 못하였던 국내외의 관련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상호 비교, 검증하여 이전의 자료에서 크고 작은 여러 오류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대구

부립도서관 건물의 변천과정을 여러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사실(史實)에 기초하고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추론하여 도서관 건물의 변천과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일제강점기 도서관사 연구 중 지방의 도서관사에 대한 연구가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존 연구성과를 계승하는 한편, 기존 연구의 오류들을 바로 잡고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 역시, 과거보다 더 많은 자료에 기초하였지만 연구과정에서 관련 자료의 부족과 존재여부 확인 불가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오류와 미비점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는 이후 더 많은 관련 자료의 발굴과 분석을 통해 극복될 것으로 판단한다.

끝으로 지방의 도서관사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결핍된 상황에서 향후 일제강점기 대구부립도서관의 장서와 시설, 인력, 서비스 등 세부활동에 대한 연구와 같은 시기 대구부립도서관 이외의 대구의 다른 기관이나 단체, 개인의 도서관 활동에 관한 연구 등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일제강점기동안 대구지역의 도서관 역사를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慶北大觀編纂委員會. 1958. 『慶北大觀』. 大邱: 新生文化社.
慶尙北道. 1919. 『慶尙北道物産共進會事務報告』. 大邱: 慶尙北道.
김남석. 2001. 대구부립도서관과 일제의 식민지정책.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4): 1-23.

- 김남석. 2010. 『일제치하 도서관과 사회교육』. 대구: 태일사.
- 김영석, 이용재. 2018.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공공도서관 규명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2): 131-150.
- 김일수. 2013. 팔공 및 동촌 일원의 근대 역사와 삶에 대한 시론. 『2013 동구팔공포럼』. 2013년 7월 24일. 대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8층 국제회의실, 10-23.
- 達捨藏. 1936. 『慶北大鑑』. 大邱: [發行者不明].
-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1999. 『대구중앙도서관 80년사 1919-1999』. 대구: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2019. 『대구중앙도서관 100년사 1919-2019』. 대구: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 대구부. 1922. 『대구부 도서관 조례 중 개정의 건』(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02877 - 0026891834). 대구: 대구부.
- 大邱府. 1922. 『大邱府勢一斑』. 대구: 大邱府.
- 大邱府. 1937. 『大邱府社會事業要覽』. 大邱: 大邱府.
- 大邱府. 1942. 『大邱府例規類集』. 大邱: 大邱府.
- 大邱府. 1943. 『大邱府史』. 大邱: 大邱府.
- 大邱府立圖書館. 1927. 『圖書目錄』. 大邱: 大邱府立圖書館.
- 대구시. 1973. 『대구시사』. 대구: 대구시.
- 대구시사편찬위원회. 1995. 『대구시사 제1권 통사』. 대구: 대구광역시.
- 대구시사편찬위원회. 1995. 『대구시사 제5권 문화』. 대구: 대구광역시.
- 都甲玄卿. 1923. 大邱府立圖書館に就て - 開館準備の忙中より. 『慶北』, 2(9): 70-79.
- 송승섭. 2020. 日帝 强占期 京城圖書館의 變遷 過程에 관한 考察.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1): 71-90.
- 이향원. 2006. 어두운 일제강점기에 조선을 비추었던 한줄기 빛. 『문화재사랑』, 21: 20-22.
- 이효봉. 1979. 도서관 60년사. 『도서관보』, 4: 21-30.
- 정윤희. 2016. 『1910년대 지방 물산공진회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朝鮮之圖書館. 1934. 朝鮮圖書館界. 『朝鮮之圖書館』, 4(2): 35-40.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Daegu City Library. 1927. *The Catalog of The Daegu City Library*. Daegu: The Daegu City Library.
- Daegu City. 1922. *General Information of Daegu City*. Daegu: Daegu City.
- Daegu City. 1922. *The Amendment of The Regulations of Daegu City Library*(National Archives of Korea Document No. CJA0002877 - 0026891834). Daegu: Daegu City.

- Daegu City. 1937. *Handbook of Social Welfare Services of Daegu City*. Daegu: Daegu City.
- Daegu City. 1942. *The Collection of the Regulations of Daegu City*. Daegu: Daegu City.
- Daegu City. 1943. *The History of Daegu*. Daegu: Daegu City
- Daegu City. 1973. *The History of Daegu*. Daegu: Daegu City.
- Daegu Metropolitan Joong-Ang Library. 1999. *The 80-year History of Daegu Metropolitan Joong-Ang Library 1919-1999*. Daegu: Daegu Metropolitan Joong-Ang Library.
- Daegu Metropolitan Joong-Ang Library. 2019. *The 100-year History of Daegu Metropolitan Joong-Ang Library 1919-2019*. Daegu: Daegu Metropolitan Joong-Ang Library.
- Dal, Sa Jang. 1936. *The Encyclopedia of Kyungbook*. Daegu: [N/A].
- Do Gab, Hyun Gyung. 1923. "About Daegu City Library - Preparation for Opening." *Kyungbook*, 2(9): 70-79.
- Jeong, Yun Hui. 2016. *Local Exhibition in 1910s Colonial Korea*. M.A. thesis.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 Kim, Il Soo. 2013. "An Essay for Modern History and Lives of Palgong and Dongchon Area. 2013 Donggu Palgong Forum, July 24th, 2013. Daegu: Daegu Kyungbook Design Center, 10-23.
- Kim, Nam-Seok. 2001. "Taegu Burip Library and Japanese Colonial Polic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2(4): 1-23.
- Kim, Nam-Seok. 2010. *Library and Social Education in Japanese Colonial Period in Korea*. Daegu: Taelisa.
- Kim, Young-Seok and Yong-Jae Lee. 2018. "A Study on the First Modern Public Library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2): 131-150.
- Lee, Hyang Won. 2006. "A Ray of Light that Shone on the Dark Japanese Colonial Era." *Love for Cultural Assets*, 21: 20-22.
- Lee, Hyo Bong. 1979. "The 60-year History of Daegu City Library." *The Library Journal*, 4: 21-30.
- Song, Sung-Seob. 2020. "A Study on Changing Process of the 'Kyungsung Librarie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of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1): 71-90.
- The City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Daegu. 1995. *The History of Daegu No.1 Complete History*. Daegu: Daegu Metropolitan City.
- The City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Daegu. 1995. *The History of Daegu No.5 Culture*. Daegu: Daegu Metropolitan City.